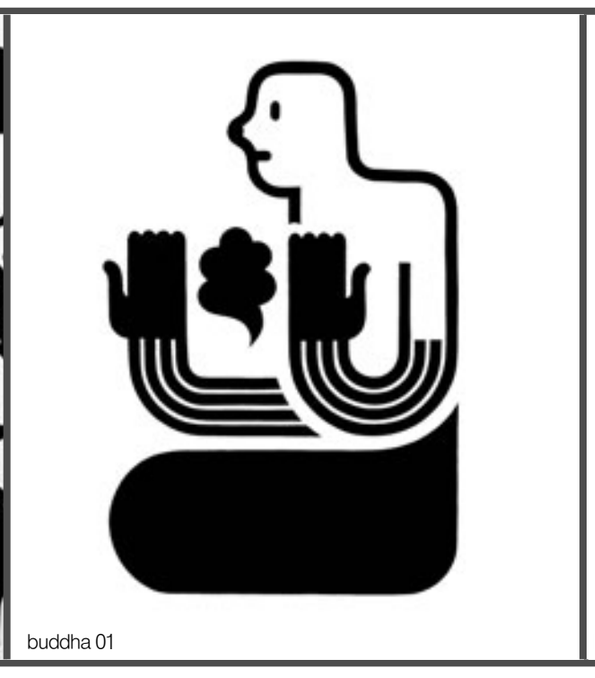

상생공생


buddha 01


Lotus 02


고(苦)

현대 미학으로 승화한 '만다라'

불일미술관, 오숙진 작가 'Manda_la : 명상의 시간' 展

11월 13일까지 연속 개최
티벳사원 내벽 그림 영감
도상 현대화 작업 '눈길'

법련사 불일미술관(학예실장 여서)은 11월 13일까지 2017년 불일미술관 신진작가공모 당선작가 릴레이 전시 일환으로 오숙진 작가의 'Manda_la : 명상의 시간' 展을 연다.

서울대 서양화과와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미술원 회화과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오숙진 작가는 대한불교진흥원 콘텐츠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번 'Manda_la : 명상의 시간' 展은 오 작가의 불교적 심상이 잘 드러나는 예술작품이 선보인다.

계기는 인도에서 만난 티벳불교의 독특한 미학적 감성충격이었다. 인도 북동부 다르질링의 티벳 불교사원을 방문했던 오숙진 작가는 사원 내벽에 그려진 도안에 젊은 승려 몇몇이 채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원의 내벽에 그려진 그림은 형태와 색채가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오랜 시간 반복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미술보다는 보존 전승되는 모습을 보여 오숙진 작가에게 아쉬움으로 작용했다.

이미 만들어진 도안을 옮겨 그리고 채색하는 과정은 창의적인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예술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장인에 가깝다고 여긴 오 작가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1세기의 조형언어로 불교의 철학 세계를 이미지화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현실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성격을 생각하더라도 불교 도상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런 오숙진 작가의 작품은 만다라의 도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왜 하필 불교 도상에 관심을 갖느냐고 묻는 질문에 오숙진 작가의 대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오 작가는 "누구나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그 고민이 삶의 본질,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뻗어 나갔고 결국은 붓다를 만났다"고 했다.

불교는 수천 년 전 붓다의 말씀으로 출발하였지만 지금도 그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의 철학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철학적 인문학적 차원에서 불교에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기대어 각자의 답을 찾아 나간다. 오숙진 작가 역시 무상(無常), 연기(緣起), 고집멸도(苦集滅道) 등 불교의 핵심 화두를 묵상하고 현대의 조형언어로 풀어냄으로써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2015년 무상(無常)이라는 화두에서 출발한 'Manda_La' 시리즈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2017년 작업에서는 붓다의 핵심 철학과 함께 붓다의 21세기적 도상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일상속 불교철학으로서, 개별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사색하는 명상을, 함께하는 삶으로서는 상생과 공생을 모색함으로써 불교철학과 삶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점이 오숙진 작가의 전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02)733-532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템플스테이 아시아 여행객 사로잡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0월 27~30일 '대만 국제여행박람회' 참가


10월 29일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대만 국제여행박람회(Taipei International Travel Fair)에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설명회를 진행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연꽃지화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템플스테이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약 36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했다.

특히 10월 29일에 진행한 대만 여행업계, 여행박람회 참가자 대상 설명회에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에 맞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5개 사찰(월정사, 삼화사, 낙산사, 신흥사, 백담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대만 국제여행박람회는 1987년부터 열리기 시작해 올해 30년째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여행박람회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이번 여행박람회 참가를 통해 템플스테이 인지도를 넓히는 한편, 현지 여행사와 여행협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다양한 템플스테이 여행코스를 출시하는 등 중화권 참가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한국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포함된 성지순례형 여행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기와 색 입히며 불심 증장 계기 만들어요"

옥천사성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눈길

옥천사성보박물관(관장 원명)은 11월 17일부터 박물관 강의실에서 하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기와에 색을 입히다'는 제목으로 개축이나 보수 등으로 사찰의 전각지붕에서 내려온 기와를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11월 17일과 18일, 24일과 25일 4일간 진행되며 일종의 정크아트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와 함께 12월 15일과 16일에는 겨울, 새해소망을 담아서 만들어보는 소원등만들기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공주박물관 '백제의 불교미술' 특별전

11월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이 11월 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상설전시관 재단장을 기해 '백제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제의 불교 수용 과정 및 불상, 탑 조성에 대한 백제 불교미술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전은 프롤로그 '삼국시대 불교 전래', 1부 '백제, 불교를 수용하다', 2부 '불상을 조성하다', 3부 '사찰과 탑을 조성하다', 에필로그 '백제불교미술의 특징과 계승' 등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시전에서는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이 2002년 국립경주박물관 전시 이후 두 번 째로 전시된다.

노덕현 기자



